

“눈밭에서 펭수와 인증샷 어떻습니까?”

스노위랜드, 래프팅 썰매장 등 다양한 선착순 예매시 '펭수' 그림톡 증정 돼지며 고객에 리프트·장비 할인 남이섬과 협약...할랄 레스토랑 오픈

강원도 흥천 비발디파크는 전부터 스키나 보드 이외에 스키리조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 '애프터 스키' 콘텐츠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강원 지역 스키장답게 넉넉한 슬로프 면적을 자랑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가족끼리 겨울여가 콘텐츠를 즐기려는 최근 트렌드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공략했다. 그 결과 지금은 스키장을 중심으로 워터파크부터 실내테마파크, 승마시설, 눈놀이공원 등 다양한 겨울여가 아이템을 자랑한다. 이번 19/20시즌에도 비발디파크는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서비스로 고객맞이에 나서고 있다.



비발디파크는 19/20 겨울시즌 매력포인트로 고객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한 시설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서비스 강화를 앞세웠다. 비발디파크 리조트 시설을 바라보며 넓은 슬로프를 질주하는 스노우보더(왼쪽)와 가족방문객에게 특히 인기 높은 눈놀이테마파크 스노위랜드의 튜브썰매. 사진제공 | 비발디파크



“달력 안에 초콜릿이...”

현대백화점이 압구정본점·목동점·천호점·킨텍스점 등 4개 점포 식품관에서 '오픈박스 달력 초콜릿'을 선보였다. 달력 형태로 숫자를 뜯으면 믿음·도전·감사·인내 등의 키워드 및 메시지와 함께 생과일 초콜릿이 함께 들어 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비발디파크와 이번 겨울 깜짝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인기 캐릭터 펭수.

비발디파크는 현재 라드, 재즈, 테크노, 블루스, 펑키, 테크노1,2 등 총 6면 슬로프를 운영하고 있다. 새벽스키도 매일 오전 4시까지로 확대해 스키마니아들을 맞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고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국내 최장인 312m 무

빙위크와 대형락커도 새로 설치했다. 19/20 시즌 오픈을 기념해 D멤버십 업그레이드 대상자 19세와 20세(2000-2001년생) 고객에게는 무료 리프트권을 제공한다.

요즘 스키장들이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눈놀이 테마파크인 스노위랜드도 13일 그랜드 오픈했다. 신규시설인 플라 스틱 썰매장을 비롯해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인기 어트랙션 스노위레이싱, 그리고 튜브썰매장, 래프팅썰매장, 유아 썰매장 등 스키나 보드를 못 타는 사람도 즐기기에 좋은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를 갖추었다.

●'국민 캐릭터' 펭수와 깜짝 콜라보레이션

이번 시즌에는 화심의 카드로 요즘 대세 캐릭터로 꼽히는 펭수와 국내 리조트 중 처음으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내년 3월 1일까지 스노위랜드에서 '펭수 찾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펭수 스마트폰 그림톡' 선착순 증정 행사에서는 티켓예매 사이트 마이리얼

트립에서 스노위랜드 입장권을 구매하고 현장서 입장권을 수령하면 한정판 펭수 그림톡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스노위랜드 곳곳에 있는 4m 자이언트 펭수와 인증샷도 찍을 수 있다.

현재 펭수가 스노위랜드를 찾아 직접 눈썰매, 눈꽃축제, 푸드마켓, 전용곤돌라 등을 즐기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펭수 리미티드 스티커도 제작했다.

●동계시즌 특별할인 프로모션

먼저, 돼지띠 고객(47년, 59년, 71년, 83년, 95년) 고객은 31일까지 리프트 및 장비렌탈 패키지를 50% 할인한다. 2019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도 수험표 지참 시 리프트와 장비렌탈 패키지를 단 일권 3만 3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 및 대학생은 31일까지 리프트 및 장비렌탈 패키지를 40% 할인하고, 모바일 멤버십 'D멤버십'에서 쿠폰을 발급받으면 4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스노위랜드도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는 30% 할인 혜택을 주었다.

2월 말까지 인근 소노문 양평 리조트에서 체크인 기준 일~목 투숙객에게는 리프트권, 리프트와 렌탈패키지, 스노위랜드, 오션월드를 할인한다.

●남이섬과 맞손, 첫 할랄 레스토랑 오픈

비발디파크의 모기업 소노호텔&리조트와 남이섬은 11월 관광 인프라와 상품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첫 성과로 남이섬의 할랄레스토랑 체인 '동문 익스프레스'가 비발디파크에 문을 연다. 어린이 동반 고객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퓨전한 식 등 내국인을 위한 메뉴도 제공한다.

한편, 비발디파크는 외국인 스키 관광객을 위한 전용서비스도 강화했다. 전용 무료 셔틀버스를 하루 3회 확대, 명동, 서울역, 도심공항, 건국대 등에서 비발디파크까지 운행한다. 외국인 전용 물센터 운영하고, 스키장에는 관광공사 인증 투어리스트 센터를 비롯해 외국인 전용 렌탈존을 마련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르노삼성, SM7 LPe 200대 할인 판매

르노삼성차는 SM7 LPe를 200대 한정 할인판매한다. 31일까지 50만~1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12월 프로모션인 100만 원 지원에 추가되는 혜택으로 전시차는 100만 원, 부산재고는 50만 원 각각 더 할인받을 수 있다. SM7 LPe는 르노삼성자동차의 LPe 기술과 트렁크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도넛탱크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국내시장에 '준대형 LPG 세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모델이다. 원성열 기자

제주신화월드, 카카오파업스토어 오픈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20일 '카카오프렌즈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2020년 2월 9일까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에서는 카카오프렌즈 메인 캐릭터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2012년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캐릭터로 처음 탄생한 카카오프렌즈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의 특성을 반영해 재치 넘치는 표정과 행동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2014년부터는 오프라인 브랜드스토어를 개장해 캐릭터상품 전시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범 기자

교원그룹 '딥체인지 크리에이터' 개최

교원그룹이 2020년 1월 4,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0 교원 딥체인지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교육을 비롯해 가전, 뷰티, 헬스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고객과 함께 즐기는 문화 체험의 강을 마련한다. '크리에이터와 함께 크리에이티브하게 즐기는 크나큰 미래 상상'을 주제로 열린다. 마이린, 라임튜브, 대도서관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출연한다. 크리에이티브, 교육문화, 생활문화 등 3개의 체험존으로 구성했다. 정정욱 기자

“미래 모빌리티 선두 나선다”...현대모비스 美 'CES 2020'서 신기술 공개

미래차 콘셉트카 '엠비전 에스' 선보여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체험 공간도

현대모비스가 2020년 1월 초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 자율주행 기반 도심 공유형 모빌리티 콘셉트카 '엠비전 에스'(M. Vision S)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등 신기술을 공개한다.

엠비전 에스는 완전자율주행 콘셉트 차량이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자율주행 센서와 커뮤니케이션 라이다, 가상공간

터치, 3D리어뷰, 크렐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현대모비스의 미래차 핵심기술을 담았다. 이중 흥미로운 것은 커뮤니케이션 라이다. 완전자율주행차가 사람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신개념 램프이다. 차량이 주행상황에 따라 웃는 표정을 짓거나 '먼저 가세요', '조심하세요' 등 다양한 그래픽 표시로 보행자와 소통한다. 탑승자와도 드라이빙 모드, 감정상태 변화 등을 인식해 조명을 바꾸고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별도의 무드등을 켜는 방식으로 교감한다. 엠비전 에스 내부는 현대트랜시스와의

디자인 협업으로 사무나 휴식이 가능한 라운지 형태로 제작됐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체험 공간에서는 천장을 감싸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갖춘 보트와 지게차, 트램 등의 친환경 스토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충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모듈 전용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백경국 현대모비스 연구기획사업부장(전무)은 "CES에서 공개하는 핵심기술인 자율주행(Autonomous), 커넥티비티(Co



현대모비스의 'CES 2020' 전시 부스 조감도. 사진제공 | 현대모비스

nnectivity), 전동화(Electrification)의 앞 글자를 모으면 'ACE'가 된다"며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의 에이스가 되도록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차타고 해 보러GO”...코레일, 해돋이 상품 출시

일출 명소 낙산사·남해보리암 등 운영

코레일관광개발은 31일 출발해 1월 1일 새해 해돋이를 감상하고 돌아오는 무박 일정의 해돋이 명소 여행상품을 내놓았다.

우선 '낙산사 동해시티투어'는 31일 밤 11시 서울역을 출발해 동해역에 내린 후 전용차량을 이용해 낙산사에 도착한다. 해돋이 감상에 이어 강릉 중앙시장과 추암춧대바위를 돌아본다. 동해역에서 오후 3시 30분경 출발해 서울역에 오후 8시 30분쯤 도착한다.

'추암춧대바위 해돋이·목호항·강릉중앙시장' 코스는 서울역에서 31일 밤 11시에 출발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를 타고 간다. 추암춧대바위에서 일출을 보고, 강릉 오죽헌, 중앙시장, 눈골담길, 목호항을 둘러보고 동해역에서 오후 3시30분 서울행



기차를 탄다.

'남해 보리암·독일마을·진주성' 코스는 31일 밤 10시 55분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해 남해 보리암에서 일출을 감상 한 뒤, 인근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을 관광한다. 마지막으로 진주성 투어에 이어 대전역에서 오후 7시02분 서울행 기차를 탄다. 자세한 이용정보는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와 콜센터(1544-77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포뮬러 E 글로벌 모델로 발탁된 방탄소년단. 사진제공 | 포뮬러 E코리아

방탄소년단, 전기차 레이싱 대회 '포뮬러E' 모델 발탁

내년 5월 서울서 개막...12개 팀 참여

방탄소년단이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포뮬러 E(Formula E) 홍보 모델로 활약한다.

포뮬러 E코리아는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의 2020년 글로벌 모델로 방탄소년단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포뮬러 E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세계 주요 도시에

서 열리는 가장 친환경적인 모터스포츠 축제'라는 키 메시지를 소개한다.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포뮬러 E 공식 콘텐츠는 2020년 1월부터 한국 등 레이스가 열리는 세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다.

5개 대륙, 12개 도시에서 열리는 포뮬러 E 레이스는 2019/2020 시즌에 24대의 경주차량과 24명의 레이서로 구성된 12개 팀이 참여한다. 원성열 기자